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6
----------	-------

제출년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현옥순, 한명훈, 박은정,
이재복, 이상우, 안두희,
윤오일, 선현우, 최찬규,
백승희, 김재국, 김태성,
설호영, 이진분, 유민희,
염정우, 김진숙, 천복희,
윤성영 의원(19인)

1. 주 문

-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반복되는 붕괴·추락 사고의 재발 방지, 전동차 납품·시운전 등 전 과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전 구간 적기 개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30분대로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시민의 오랜 교통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 인명사고가 반복되었음.
- 반복되는 사고에 더해 전동차 제작사까지 교체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통 시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안산선 개통과 연계한 안산시의 개발 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되는바, 신안산선의 안전한 시공과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촉구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 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됨에 따라 안산시민의 오랜 교통 숙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서는 지하 아치터널과 도로가 붕괴하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역 공사 현장에서 지하구조물 철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에는 서울 금천구 신안산선 3-2공구 개구부 확장 작업 중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다.

서로 다른 세 구간에서 1년 2개월 안에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광명 구간 사고 조사 결과에서, 설계 하중 산정 오류와 취약지반 확인 미흡, 시공기준 미준수, 감리 점검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는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음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것이다.

한편, 광명 사고구간의 재설계와 복구공사로 인해 전체 공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난 7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73.84%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공사기간과 개통 시기가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에 체결된 전동차 납품 계약이 제작사 측 납품 지연을 이유로 금년 1월 해지되었고, 새로 계약을 맺은 제작사의 최종 납품기일마저 2028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동차가 납품된 이후에도 설비 연동, 시운전, 종합 시험운행, 안전검증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개통은 2030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사고로 인해 노선 전 구간의 개통 일정이 함께 지연된다는 점이다. 특정 구간에서 벌어진 사고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노선 전체의 개통이 일률적으로 발목 잡히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안산시는 당초 2026년 12월 개통을 고려하여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연구소 부지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 일정을 계획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논의해왔다. 나아가 (가칭)자이역 신설과 대부도 연장 등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후속 사업 또한 검토 및 논의하였으나, 개통 시점 지연에 따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하루빨리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반복되는 붕괴·추락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 구간에 걸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전동차 납품부터 시운전, 안전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일부 구간의 사고로 인해 전 구간의 개통이 함께 지연되는 현재의 공정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전 구간 적기 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